



김상현

LCK포 추억 남기고... 김상현 떠나다

우승 청부사가 우승을 위한 전략카드로 고향을 떠났다.

KIA 타이거즈 V10의 주역 김상현이 6일 SK 와이번스로 트레이드됐다.

KIA는 6일 우타거포 김상현과 좌완 진해수를 SK로 보내고 우완 송은범과 사이드암 신승현을 맞바꾸는 2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김상현은 같은 팀에서 두 차례 이적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김상현은 군산상고를 졸업하고 2000년 해태 유니폼을 입었던 타이거즈 출신. 하지만 정성훈에 밀려 2001시즌을 마치고 LG로 이적했다. 한방 있는 거포로 기대를 모았지만 입지를 굳히지 못한 김상현은 2009년에도 이적의 아픔을 겪었다.

이번에도 정성훈과의 악연이 있었다. FA로 정성훈이 LG 유니폼을 입으면서 김상현의 자리가 없었다. 투수 강철민과의 1대2 트레이드로 김상현은 '절친' 박기남과 눈물을 흘리며 다시 집을 썼다.

김상현의 선택은 KIA에게는 신의 한 수였다. 주전 3루수로 신임을 받은 김상현은 이적 1주일 만에 첫 홈런을 날렸다. 개인 통산 첫 만루포였다. 이후 김상현의 불꽃은 방망

김상현·진해수 → SK

송은범·신승현 → KIA

KIA 불펜 불안 해소 위해

해결사 내주는 2대2 트레이드

호랑이굴 '범'에 밀린 '대포'

이 '범'호에 3루 내주고

송은 '범'과 빅딜 고향 떠나

"팬들에 감사...응원해달라"

이는 멈출 줄 몰랐다. 최희섭과 함께 막강 CK포를 구축하면서 홈런왕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였다.

내부의 화끈한 타선 경쟁 속에 KIA는 가을잔치를 위한 신바람 질주를 했다. 친정으로 돌아온 2009년 김상현의 성적은 타율 0.315, 36홈런 127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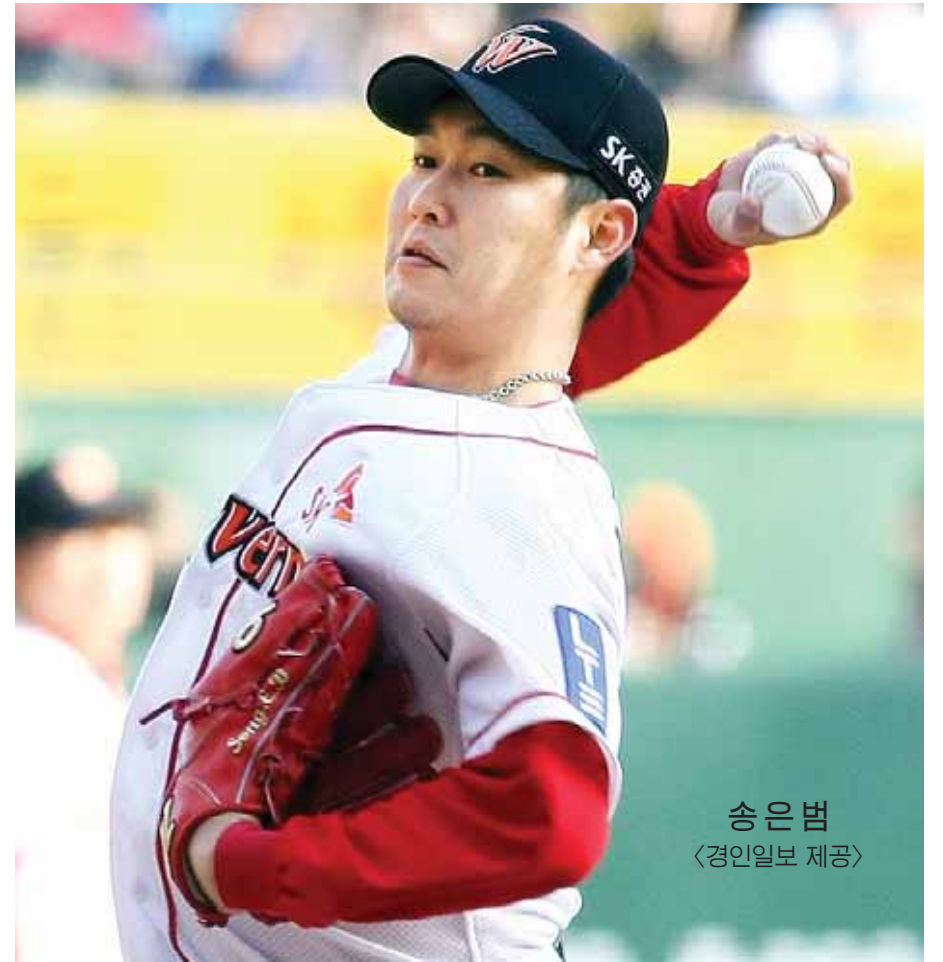
고향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우승 청부사'가 된 김상현은 홈런왕과 함께 시즌 MVP 트로피도 가슴에 품었다.

무명의 설움을 알고 있던 김상현은 "2군 선수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며 MVP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화려했던 2009년 이후 시련의 연속이었다. 부상이 먼저 김상현을 잡았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 속에 수술까지 받으며 몸고생을 했던 김상현은 2011 시즌에는 이병호의 영입으로 마음 고생을 했다.

이병호에 밀려 외야 클러브를 켜야 했던 김상현은 지난 시즌에는 부상과 부진의 악순환에 빠졌다.

부상에서 벗어나 질치부심 준비했던 2012



송은범
(경인일보 제공)

시즌에는 FA 대어 김주찬이 있었다. 외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벤치의 구상에서 김상현은 밀려났다. 김원섭의 지독한 부진 속에 간신히 출전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결국 V11을 위한 전략 카드가 됐다.

불펜이 약점인 KIA는 우승을 위해 마운드를 선택했다. 송은범이라는 대어를 위해 우타 거포로 고민하고 있는 SK에 김상현을 내어놓았다.

송은범은 부드러운 폼에서 나오는 150km의 강속구와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일품인 SK의 대표적인 투수. 올 시즌 마무리로 출발했지만 선발로도 좋은 활약을 했다. KIA에게는 선발과 중간, 마무리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었다.

V10의 주역으로 야구 인생 정점에 섰지만 V11을 위해 두 번이나 친정팀을 떠나게 된 김상현.

김상현은 "오전에 얘기를 듣고 정신이 없었다. 다시 또 보내겠다는 사실이 아프다. 며칠 야구가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냉정한 프로의 세계다. 지난번에는 울면서 짐을 싣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담담하긴 하다"며 "많이 응원을 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 김상현의 팬으로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현이 타이거즈에서 새긴 출무닉

- ▶ 2000년 KIA 전신 해태타이거즈 입단
- ▶ 2002년 LG 트윈즈 거쳐 2009년 KIA 복귀
- ▶ 2009년 36홈런 127타점... 프로야구 MVP
- ▶ 2010년 21 홈런·2011년 14 홈런
- ▶ 올 시즌 2 홈런·16 안타·10타점·타율 0.222

서재응 '목마른 10승'... 올시즌엔 달성할까

특 & Talk

2012년 KIA의 가을은 서재응으로 시작해서 서재응으로 끝난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한 계절이었다.

9월23일 서재응의 완봉승으로 시작된 KIA 선발진의 4경기 연속 완투 릴레이. 10월6일 최종전까지 KIA 선발진은 7경기에서 불펜 가동을 중단시켰고 윤석민과 소사, 김진우는 완봉승까지 기록했다.

특히 서재응은 2경기 연속 완봉승과 함께 선동열 감독(37이닝)을 뛰어넘은 44이닝 선발 무실점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9월6일 SK전에서부터 서재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날 경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7이닝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의 아트 피칭'.

경기가 끝난 후 7승째를 기록한 승리투수에게 "서재응에게 10승이란?" 질문을 던졌다. 서재응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서 시원하게 웃었다.

정교한 컨트롤로 미국 무대를 밟았던 빅리거. 국제 무대에서도 통한 노련한 베테랑이지만 서재응은 아직 10승 고지를 밟아본 적이 없다.

저물어가던 KIA의 가을을 화려하게 불태웠던 지난 시즌도 9승에서 끝났다. 삼성과의 시즌 최종전에서 8이닝을 4실점으로 버텼지만 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방어율 2.59, 9승8패가 한국에서의 6번째 시즌 성적이었다.

2010년 가을에도 서재응은 쓴 술잔을 들이켰다. 24경기에서의 기록은 방어율 3.34, 9승7패.

이 해 최종전은 더욱 난감했다. 서재응의 10승과 양현종의 공동 다승왕을 넘겨놓고 KIA에게 남은 경기는 단 하나. 벤치의 고민과 서재응의 양보 속에 김광현과 다승왕 경쟁을 하던 양현종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초반 난조 속에 양현종은 1승을 더하지 못하면서 김광현(17승)에 이어 다승 2위가 됐다.



최종전 선발을 앞두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럴 거면 차라리 1승을 탈할 것 그랬다"면서 호탕하게 웃던 서재응. 어찌 목심이 안났겠는가.

실력·경력·외모 모두를 갖춘 서재응이지만 이상하게 '승운'(勝運)은 살짝 부족했다. 서재응이 잘 던지면 타자들이 침묵하고, 방망이가 터지면 불펜도 같이 터지고, "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는 서재응에게 1승의 가치는 남다른 것이다.

똑같은 1승인데 그 가치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가을의 1승은 더욱 간절하고 크다. 정신 없던 봄, 몸이 지쳐 버린 여름에 쉽게 흘러보낸 1승이 사무치게 아프게 느껴지는 계절이다. 눈앞에 고지가 보일 때야 한 번만 더 달릴 걸, 그때 조금만 더 침착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선수와 지도자가 후회를 한다.

2009년 SK는 시즌 최종전에 19연승을 달리고도 KIA를 잡는 데 실패했다. 3루수 최정이가 투수로 나왔던 KIA와의 12회 연장 승부, 이 경기의 끝내기 패가 SK에게는 사무치게 아픈 1경기가 됐다.

KIA는 지난 9월 너무 일찍 가을 싸움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1승을 놓고 팽을 쳤다. 끝나버린 4강 싸움이라는 예상과 달리 롯데의 예상치 못했던 연패와 KIA 선발진의 호투가 맞물리면서 4강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은 시즌 3경기를 남겨두고서야 롯데로 결정됐다.

"일구이무(一球二無)" 다음 공이 없다는 생각으로 공을 던져야 하는 투수와 역시 다음 공은 없다는 생각으로 공을 맞아야 하는 타자. 공 하나, 1승의 가치는 언제 필박하게 다가올지 모른다.

참, 서재응 '인생의 목표'에는 -7이 남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전망대

롯데와 홈·삼성과 원정 팀 '2000승-5' 축포 준비

'호랑이 군단'이 축포를 터트린다. 험난한 원정 6연전을 넘은 KIA가 500승과 2000승을 위한 축포를 준비하고 있다.

KIA는 지난주 1위 라이벌 두산·넥센과의 대결에서 4승2패의 성적을 거두며 한숨 돌렸다. 난적을 상대로 4승을 추가하면서 선동열 감독의 500승과 팀 2000승 고지기도 눈앞에 다가왔다.

앞으로 4승을 더하면 선 감독의 500승이 채워지고, 5승째에는 팀 2000승이 완성된다.

KIA는 주중 롯데와 홈 3연전을 벌이고 주말에는 포항으로 건너가 삼성과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롯데와의 대결은 객관적 전력으로 KIA에 무게가 실린다. 롯데는 지난해 이대호에 이어 올 시즌에는 리드오프 김주찬이 빠져나가면서 예전의 불타는 타선이 아니다. 롯데의 시즌 타율은 0.245로 전체 7위다. 홈런은 5개로 최하위다. 마무리 정대현이 부진으로 2군에 다녀오는 등 불펜이 흔들리며 이종교를 겪고 있다.

삼성과의 경기는 KIA에게 부담스럽다. KIA는 앞선 3연전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도 뒷심싸움에서 밀리며 삼성에 위닝 시리즈를 내줬다. 윤성환에게는 완봉패를 당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무더운 삼성 마운드 공략에 실패했다.

삼성은 또 이번 주중 휴식기를 갖게 되면서 주말 총공세가 가능하다. 전력을 재정비한 삼성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KIA의 부담이 크다.

다행히 KIA의 1위 행진에 걸림돌이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26	17	8	1	0.680	-
2 넥센	26	17	9	0	0.654	0.5
3 두산	26	16	9	1	0.640	1.0
4 삼성	26	16	10	0	0.615	1.5
5 LG	27	13	14	0	0.481	5.0
6 SK	24	11	12	1	0.478	5.0
7 롯데	26	11	14	1	0.440	6.0
8 NC	24	6	17	1	0.261	10.0
9 한화	27	6	20	1	0.231	11.5

됐던 마운드에 전력 강화가 있었다.

어깨 통증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윤석민이 지난 4일 넥센과의 경기를 통해서 에이스의 귀환을 알렸고, 6일 트레이드를 통해 SK에서 우완 송은범과 사이드암 신승현을 영입했다. 노련한 두 투수의 합류로 KIA는 윤석민·송은범·임준섭을 놓고 선발과 중간 운영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김상현이 빠진 외야가 돌발 변수다. 김상현의 올 시즌 성적은 타율 0.222, 2홈런 10타점. 치열한 경쟁으로 불이 붙을 거라 예상했던 외야는 이용규·김원섭의 동반 부진으로 힘이 빠져있다. 강건 외야수가 없는 만큼 수비에서도 김상현의 부재가 아쉬울 수 있다.

KIA가 트레이드 효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가 6연전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KIA의 티켓 파워에도 관심이 쏠린다. KIA는 지난달 26일 삼성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5일 넥센 목동전까지 9경기 연속 매진 기록을 만들어 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4실점 4승 불발

LA 다저스, SF에 3-4 패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괴물 투수'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4승 달성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6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 챔피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8안타, 볼넷 둘을 내주고 4실점 했다. 탈삼진은 두 개를 기록했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0-4로 끌려가던 7회초 1사구 타석때 스킵 슈마커와 교체됐다. 팀이 추격을 펼쳤으나 3-4로 패해 류현진은 시즌 2패째를 안았다.

메이저리그에 7경기째 등판한 류현진이 퀄리티스타트를 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류현진은 공 85개를 던졌고, 이 중 53개가 스트라이크였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3.35에서 3.80으로 높아졌다.

류현진은 "자이언츠의 5번 타자를 잡지 못한 게 패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초반이고, 앞으로 많은 경기들이 있는 만큼 매경기 집중해서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자 프로배구 리스앤캐시 창단

감독엔 월드스타 김세진

남자 프로배구 7번째 구단인 리스앤캐시가 정식 창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팀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리스앤캐시는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에이앤피파인설대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구단 창단을 공식 발표했다.

리스앤캐시는 '월드스타' 김세진(사진) 전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을 창단 감독으로 영입했다.



/연합뉴스